

# 쑥쑥 크는 '택배왕국'... 1인당 배송 年 100개 넘었다

### 업계 경쟁 과열에 단가 싸지고 서비스 개선... 시장 급성장 작년에만 배송물량 51.5억 건... 2020년보다 54% 늘어나

한해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100건을 돌파했다. 택배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며 단가와 서비스 양면에서 개선된 것이 택배 산업을 크게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택배 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 우리나라 연간 택배 물량은 51억5000만 건으로 2020년(33억7000만 건)보다 52.9% 증가했다. 1인당 연간 이용 건수는 따지면 100.4건이었다.

대한상의는 택배 물량 증가 이유로 4C(△C-커머스(China-commerce) △경쟁(Competition) △소비자 편익(Consumer benefit) △비용절감(Cost down))을 꼽았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유통업체들의 초저가 공세로 국내외 공급자

경쟁이 심화됐다. 중국 유통 업체들이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국내 택배사들도 이들 업체들의 물동량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서며 택배 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업계 간 치열한 시장경쟁도 택배 시장을 키운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배송 속도가 경쟁 우위 및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커머스와 택배사는 풀필먼트(고객 주문에 따른 출고-배송-재고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이커머스시장의 회원제 확산도 택배 이용 증가에 단초를 제공했다.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반 회원과 달리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



기 때문에 이용 부담은 낮아지고 편리성은 높아져 택배 이용량 증가로 이어졌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이커머스와 택배사의 물류 인프라-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장 요인이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물류 인프라를 통합하고 인공지능과 물류 로봇 등 첨단기

술을 활용한 물류 시설 자동화 등 지속적인 물류 효율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저렴한 택배 단가 구조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고속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 실제로 택배 평균단가는 2012년 2506원에서 2021년 2366원으로 5.6% 감소했다.

장근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내 소비자는 이커머스의 빠른 성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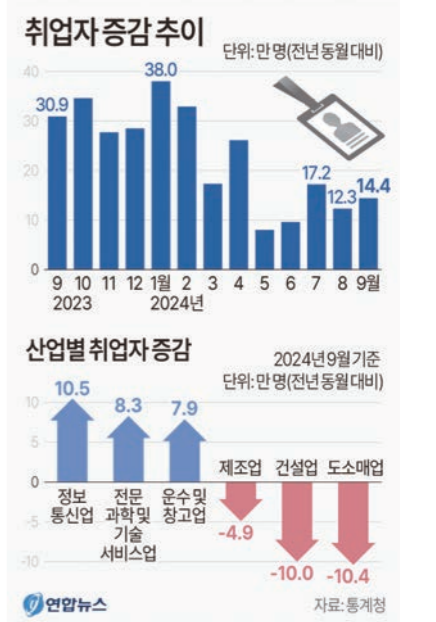
택배 시장 내 치열한 경쟁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1회용기 과대 포장 등의 부작용도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재활용과 재사용 등 순환 비즈니스 모델 확산과 친환경 포장 등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관심과 노력도 함께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 건설업 취업자 역대 최대 감소

### 9월 취업자수 14만4000명↑

지난달 취업자 수가 14만여 명 증가했다. 석 달째 증가했고 증가 폭도 10만 명대였다. 다만 부진을 겪는 건설업에서는 역대 최대 폭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가 288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4000명 증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월 8만 명·6월 9만 6000명 수준에서 7월 17만 2000명으로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이어 8월에 12만 3000명으로 지난달까지 석 달째 10만 명대를 기록 중이다. 다만 연초와 비교하면 30만 명을 웃돌았던 것과 달리 확연히 고용창출력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가 10만 명 줄었다.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이 불황을 맞이하면서 수주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취업자는 5개월째 줄어드는 추세다. 도소매업에서도 10만 4000명 감소해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감소 폭은 2021년 11월 12만 3000명 줄어든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김기찬 기자 gskim@skyedaily.com

## 제약·의료업체, 의사에 전년 이익 8000억

### 제품설명회 142만 건...임상시험 연구비만 5362억 원 의약품 한해서만 7229억... 약품도 1793만 개 견본 제공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지난해 보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8000억 원을 넘었다. 임상시험 연구비는 5362억 원이나 지급됐고 제품 설명회가 142만 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서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8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경제적 이익 지급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약국) 등 보건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품 견본수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 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이 5362억 원이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 원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 원(3625건) 제품 설명회에 2222억 원(135만 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 원(5193건) 학술대회 71억 원(762건) 순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약품 1793만 542개, 의료기기 254만 5496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을 위한 견본품으로 의약품 765만 4586개, 의료기기 10만 4140개가 제공됐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성능 확인을 위해 7



만 1338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됐다.

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CSO(판매촉진업자)의 경제적 이익 지급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나쁜 관행이 존재하는 영역이다"면서 "경제적 이익 지급 보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건 4년 새 3배 '굉충'

### 작년 한 해만 3만9000여 건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 건수가 4년 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지난해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총 3만 9082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1만 3064건)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에는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것이 알려지며 인터넷 불법 도박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불법 사행산업 감시활동도 같은 기간 1만 6662건에서 4만 8648건으로 2.9배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전체 감시활동의 80.3%를 차지했다.

사행 산업 통합 감시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불법 도박 신고와 비례해 불법 사행산업 감시 활동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실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불법 사행산업 신고는 3만 2309건으로 △불법 스포츠도박(1만 1962건) △불법 카지노(1만 733건) △불법 온라인 도박(9507건) 순이었다.

불법 사행산업 감시 예산은 2019년 18억 7000만 원에서 지난해 10억 5200만 원으로 약 41.7% 삭감됐다. 올해 예산은 14억 2600만 원으로 35.5% 증액됐다. 감시 인력은 2019년 11명에서 2020년 12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3명으로 늘었으나 올해 12명으로 감소했다.

민 의원은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유망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ERP 10 Groupware AI + More

20240718

더존, 기업 솔루션의 모든 공식을 새로 쓰다!

OmniEsol

ERP & More DX를 넘어 AX로

www.erpnmore.co.kr

행사 문의 02)6233.4383